

용역대가 높아 사업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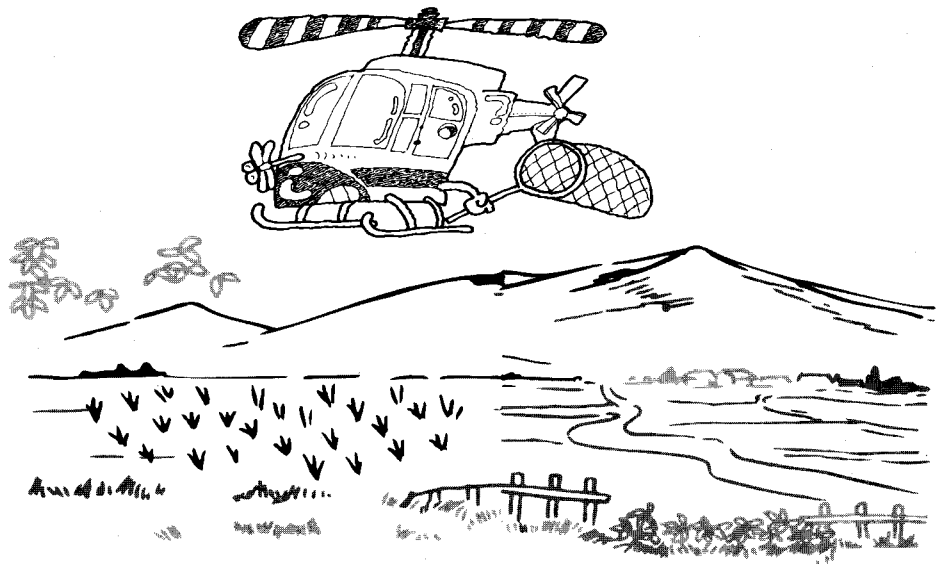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과제

우 리나라의 항공방제는 69년 농지 개량조합이 일본 항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함평, 영광, 김해에서 실시한 벼 병해충 방제가 최초이다. 70년 민간 항공회사인 「아세아항공」이 설립되었고 87년에 「한국항공」이 신규로 항공방제에 참여 하였으며 90년에 아세아항공을 흡수 통합하여 현재까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면적은 87년의 11만 2천ha를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4~5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시간에 대면적 신속이 방제

벼멸구와 같이 돌발 병해충이 만연하거나 외래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개별 농가의 병해충 방제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방



지할 수 없다. 항공방제는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기동성 있게 방제할 수 있는데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른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높으며 노동력과 방제횟수를 경감시킬 수 있어 쌀생산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희망면적 신청받아 도별 할당

항공방제 면적은 전년도에 시·도별로 희망면적을 신청받아 농림부에서 전체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면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사업물량을 배정한다. 그리고 시장·군수(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 물량 범위내에서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농촌지도기관의 지역별 병해충 예찰결과와 병해충 발생 상습지 등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시장·군수가 항공회사와 일괄 계약을 추진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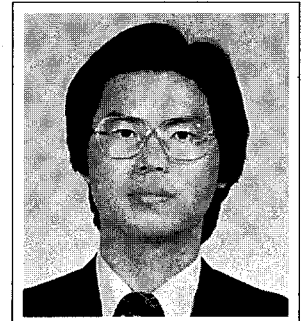
사업기간은 대개 6월 20일부터 8월 25일 까지이며 대부분 오전 6시 ~ 10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실시한다. 시간당 50~80ha를 방제할 수 있어 1일 4시간 기준으로 약 2백~3백ha를 방제하고 있다.

현행 항공방제의 헬기 용역비용(2만1천원/ha)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약값(약 1만 5천원/ha)은 해당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4차례 항공방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항공방제 용역비용을 서울시, 해당 구청, 서울시 농협, 해당 지역 농지개량조합에서 각각 1차례씩 지원할 계획이다.

WTO협정에서도 지원 허용

병해충 방제 지원은 WTO 농업 협정에서 "정부의 일반 서비스"로 분류하여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WTO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부산, 경기, 경남지역 등 대도시 주변의 시·도에서는 항공방제를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여 대상면적을 계획면적보다 늘리는 등 항공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신 상
농림부 농산기술과

기주농가 전체 동의 받기 어려워

항공방제는 인력절감 및 방제횟수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추진상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① 항공방제는 사업시기가 6~8월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확대가 어렵고 ② 항공회사에서는 용역단가가 낮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적극적인 항공방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③ 해당 시·군에서는 항공방제시 항공방제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농가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중 일부 농가의 반대만 있어도 방제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④ 항공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농약대금 회수의 어려움 때문에 다음해 항공방제 요구 물량을 줄이고 있으며 ⑤ 항공 방제시 외상 공급한 농약대금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농약 대금을 대신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⑥ 기상 여건에 따라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항공방제를 공동방제로 전환한 후 차년도 항

'97 병해충 항공방제 계획

지역	계획면적	시·군별 내역
계	40,000 ha	
부산	3,000	강서구 3,000
경기	27,500	부천 1,180, 안산 940, 평택 700, 시흥 2,570, 여주 3,700, 화성 2,868, 이천 5,344, 용인 4,972, 안성 3,660, 김포 1,566
충남	3,400	아산 500, 서산 800, 논산 500, 예산 500, 태안 500, 당진 600
경북	2,800	구미 1,480, 포항 660, 영덕 660
경남	3,300	합천 2,500, 양산 800

공방제 요구 물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며 ⑦ 일부 농가에서 벼 재배시기, 농약 선택, 살포미흡 등을 이유로 항공 방제를 기피하거나 ⑧ 양식(양어)장, 양잠, 양봉, 상수원 보호지구 주변 지역의 항공방제를 제한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생산비 절감 위해 확대 바람직

항공방제용 헬기가 많을 때는 89년처

럼 11대까지 있었으나 적을 때는 93년과 같이 3대로 줄어들어 4~5만ha를 방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헬기가 9대(한국항공 4, 서울항공 1, 홍익항공 2, 헬리코리아 2대)로 늘어나 헬기 부족으로 인한 걱정은 덜게 되었으며 순조롭게 항공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항공방제 용역단가는 96년 2만원/ha에서 97년 2만1천원/ha으로 인상 하였으며 98년도 항공방제 용역단가도 인상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공방제 용역단가를 인상하여 항공방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쌀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도 항공방제 면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제 금년도 벼 병해충 방제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만 잘 방제하면 금년도 쌀 생산 목표인 3천 3백 80만석은 기필코 달성되리라 믿는다.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무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 **농약정보**



항공방제는 특히 확산속도가 빠른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높고, 노동력과 방제횟수를 경감시켜 쌀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